

신안, 6개 섬 상수도 해저관로·지하관정 설치

빗물이용시설 추진도... 고질적 식수난 해결 나서

지속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신안 낙도 주민들을 위해 신안군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12일 신안군에 따르면 현재 신안 신의면(기도, 고평사도), 도초면(우이도, 장산면(백야도), 하의면(장재도, 문병도), 등 4개 면 6개 도서 지역, 253세대 474명이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직원들을 동원, 지난달부터 모두 5.6에 해당하는 2ℓ 짜리 생수 2920병을 공급해 오고 있다. 앞으로 가뭄이 예상되는 다음달까지 지속적으로 식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군은 이 같은 비상급수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상수도 해저 관로 및 지하수 관정,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신의면과 기도, 고평사도 간 상수도 해저관로 설치를 위해 30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말 착공했으며 내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백야도와 장재도는 지하수 관정시설을 위해 설계를 완료하고 이달에 사업을 발주하기로 했다. 문병도 역시 지하수와 빗물이용시설을 위한 신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식수난을 겪고 있는 낙도 주민들의 고충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신의면 기도 김영배 반장과 우이원을 투입해 지난해 말 착공했으며

는 식수로 연명하고 있지만 마음 편하게 물을 쓰지 못해 불편함이 크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집행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우람 군수는 "식수 부족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식수 부족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보다 먼저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이상성기자 sslee@

무안 황토랑유통공사 내년 '자연 해산' 가닥

외상 거래 농어민 피해

무안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종합유통을 주도했던 무안황토랑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가 자연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지역 농어민들의 농산물 판로에 비상이 걸리면 서 피해농어민들이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농어민들은 무안군의 대책이 미흡하다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무안군은 12일 "유통공사는 지난 2010년 상반기 업무가 종지패 상법상 휴면회사가 5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자연적으로 해산된다는 조항에 따라 내년 하반기까지 자연 해산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군이 자체 취합한 유통공사의 부채규모는 은행 대출금 10억원, 농산

물 외상 매입대금 7억여원 등 모두 17억여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유통공사의 회생이 불가능해지면 서 지역 농어민들은 7억여원의 외상 매입금을 고스란히 떼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또 군을 비롯한 주주들이 출자한 2억5000만원의 자본금, 9억7500만원에 이르는 경영지원금도 되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유통공사는 지역농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자본금 2억5000만원(군 44%, 일로농협 등 생산자단체 56%)을 출자해 지방공기업으로 설립됐지만, 가격경쟁력 약화 및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0년 상반기부터 업무가 중

해남, 고구마 조직배양묘 증식률 향상 성과

분양회수 연 2회·중순 채취기간 연장

해남군이 고구마 조직배양 무병묘 증식방법을 개선하면서, 증식률 향상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12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고구마 조직배양묘는 농가수요량에 비해 분양량이 적어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많았지만, 고구마 묘 분양회수를 2회로 늘리고 중순 채취기간을 30일간 연장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실제로 군의 연간 분양가능량은 20만본이지만 농가 분양 희망량은

100만본이 넘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당초 상반기에만 1회 분양하던 것을 9월에서 10월까지 하반기에도 분양하는 1년 2기 분양(증식) 사업을 추진했다. 군은 조직배양묘 증식용 시설하우스를 보유한 7농가에 지난해 가을 조직배양묘 7만3000본을 분양·증식해 조직배양묘 증식율을 관행방법 대비 4배에서 8배로 늘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조직배양묘를 증식한 중순 채취기간도 보통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까지였지만, 한 달 앞선 4월 중순부터 채취가 가능해져 채취횟수도 4회에서 6회로 늘어나 중순을 2번 더 채취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올해 사업평가를 거쳐 하반기 분양비율을 현행 30%에서 60%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해남에서는 연간 700여농가가 1850ha의 면적에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지난 11일 각 농가에 보급할 예정인 고구마 조직배양묘를 살펴보고 있다.

목포, 광역교통체계 구축 국비 67억 받아

경찰청 공모 결과 선정

목포시가 광역교통정보 구축사업(UTIS) 대상지로 선정돼 경찰청 국비 67억원을 전액 지원받게 됐다. 경찰청은 광역교통정보 구축사업(UTIS) 추진을 위해 전국 8개 도시 공모결과 4개 도시가 선정됐으며, 이

중 전남권에서는 목포시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 사업은 경찰청과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구축하는 첨단 교통 인프라인 지능형 도시교통정보시스템이다. 택시·순찰차 등 차량 및 노면기차국간 통신장치가 실시간 교신, 차량

위치와 속도정보를 수집하고, 사용자에 다양한 정보를 생성하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목포, 무안, 영암 등 3개 지자체를 연계해 교통정보센터 구축, 교통상황 CCTV(49개소), 노면기차국(97개소), 통신장차(2800대)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새 얼굴

“보훈복지행정 서비스 향상 최선”

조 춘 태 목포보훈지청장

“국가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분들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국민에게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일깨워주겠습니다.” 신임 조춘태 목포보훈지청장이 지난 12일 취임식을 갖고 “보훈복지행정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새로운 변화에 적극 부응하는 선진 보훈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 출신인 조 청장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관실, 정보화담당관실, 광주지방보훈청 총무과장, 순천보훈지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슬하에 부인과 1남 1녀를 두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대보름·벨런타인데이 ‘딸기 풍뎉’ 선물물



남원시 금지면 용전정보화마을이 12일 “딸기와 초콜릿으로 만든 ‘딸기 풍뎉’ (사진)”을 개발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용전정보화마을은 정월 대보름이자 밸런타인데이가 겹친 14일을 기념하기 위해 젊은이에게 인기 있는 초콜릿과 우리 농산물 딸기를 결합한 ‘딸기 풍뎉’을 개발했다. ‘풍뎉’은 프랑스어로 녹이다는 뜻이다. ‘딸기 풍뎉’은 대보름 풍요를 기원하는 농민의 정성을 담은 우리 농산물 딸기에 청소년의 마음을 사로잡는 달콤한 초콜릿을 옷 입힌 퓨전 상품이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짐볼운동, 근살 제거에 좋아요” 정읍시 샘골보건지소가 지난 10일부터 매주 월요일 운영하는 짐볼운동교실이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짐볼운동은 신체 불균형을 바로잡고 관절에 부담없이 몸을 자극해 체내에 쌓인 근살을 제거하는 등 신체의 유연성 강화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운동이다. <정읍시 제공>

순창, 울 특화작목 육성 56억 투입

블루베리 20억, 저온저장고 등 36억 지원

순창군이 선택과 집중지원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특화작목 소득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올해만 5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2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10대 작목을 선정 육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80여억원을 지원해 왔다. 올해도 블루베리 식재사업 등 특화작목 육성에 19억6000만원을 지원하며, 저온저장고 등 농업생산 기반 조성에 36억5000만원을 지원해 개방

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성장 가능작목을 집중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특화작목육성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고 있다. 한편, 순창군은 최근 겨울철 평균 기온이 섭씨 2.8도로 지난해보다 4.4도나 높아 중점 육성하고 있는 특화작목의 월동병해충 밀도 증가와 개화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대책을 나섰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갑작스런 저온이 오게 되면 서리 피해를 받을 수 있어 농가에서는 개화기 전후를 기해 과원 내에 왕겨(왕겨태우기 10a당 40개소 이상, 사방 5m 간격) 등을 태워서 늦서리 및 저온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의 예고 없는 자연재해의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며 “북반구, 콩, 고추, 버, 포도, 복숭아 등 대상작목별 시기에 맞춰 농작물보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읍, 공사·물품구매 계약 투명화

市 홈페이지 정보 전면 공개

정읍시는 12일 “지난 7일부터 공사·용역·물품구매의 모든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www.jeongeup.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조달청 입찰자료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연계된 자료를 직접 연결하는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을 시청 홈페이지(www.jeongeup.go.kr)와 연동되도록 자체 구축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이를 통해 발주계획에서부터 입찰, 계약,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감복, 검사, 대가의 지급 등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물론 공개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또 계약과 관련,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해 입찰과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복·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단신

순창, 창조시대 농촌개발 토론회

순창군은 1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창조시대 농촌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황숙주 순창군수 주재로 군 산하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동안 격식 없이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군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농촌개발

관련 총 92건의 다양한 아이디어 정책을 접수받았으며 이날 토론회는 아이디어를 제출한 공무원들이 발표하고 상호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고창, 생산기반 취약발 정비사업

고창군은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상하면 검산리, 흥덕면 교운리 일원의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상하면 검산지구 46ha, 흥덕면 교운지구 45ha에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로포장 4.3km, 배수로정비 5.3km를 시행

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다음달 중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영농환경이 개선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창=음창형기자 cy0370@

임실서高→한국치즈과학고 개명

전북도교육청은 12일 “임실군 강진면의 임실서고등학교가 교명을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로 바꾸고 3월1일자로 개교한다”고 밝혔다. 한국치즈과학고는 치즈과학과 1학급, 조리과학과 1학급에서 각 24명의 신입생을 전국 단위로 모집했다. 학교는 제빵, 제과, 조리, 식품가공,

유가공실을 갖춘 조리실습실 2실, 치즈과학실 2실, 학생 52명을 수용하는 기숙사를 완공했다. 한국치즈과학고는 세계 수준의 치즈제조 유통과 함께 순창 장류산업과 연계한 발효식품 개발, 조리, 유통 전문가를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

정읍,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발급

정읍시는 12일 “올해부터 저소득층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여행·스포츠관광 이용권이 하나로 통합된다”고 밝혔다.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대상은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며,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후기명칭 카드도 즉시 발급된

다. 또 올해부터 통합문화이용권 주관 카드 사업처가 신한은행에서 농협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신한카드 소지자는 올해처럼 재충전 할 수가 없다. 신청 가구당 10만원(청소년 1명당 5만 원 추가, 가구당 최대 35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 카드가 지원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